



추석 앞 벌초 분주 폭염이 꺾이고 선선한 가을날씨를 보인 28일 오전 광주시립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 벌초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착한 가격 업소’ 시들... ‘착한 가게’는 인기

〈정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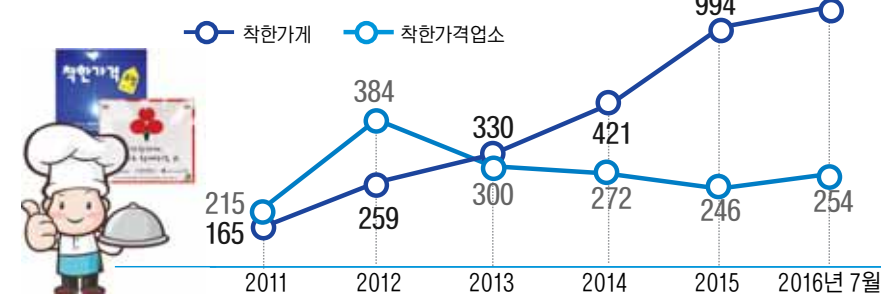
〈민간 주도〉

착한가격 업소, 정부 지정된 관리 소홀...인증 포기 잇따라  
착한가게, 공동모금회 지원 다양...6년간 8배 증가 1431곳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 지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등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반면 매달 수익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도의 ‘착한 가게’는 해마다 자발적 참여가 급증하는 등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착한 가격 업소는 지난 2011년 215개에서 2012년 384곳까지 늘었다가 2013년 300개, 2014년 272개, 지난해 246개, 올 7월 말 현재 254개로 감소 추세다. ‘착한 가격 업소’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 6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지원 미비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2013년 93개, 2014년 41개, 지난해 47개 등 ‘착한 가격 업소’가 가격 인상, 폐업, 휴업, 자진 철회 등을 이유로 인증을 반납했다. 해마다 오르는 식재료 등 원가 부담을 버티기에는 중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착한 가격 업소’ 관리를 위해 해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대폭 줄어, 업소 현황 관리 및 신규 지정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우의 한 ‘착한 가격 업소’ 업주는 “정부의 홍보를 보고 식당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며 “내년에는 가격을 올리고 인증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광주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현황



‘착한 가격 업소’와는 반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착한 가게’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65개에 불과하던 ‘착한 가게’는 지난해 2013년 330개, 지난해 994개로 늘었다. 올해도 모두 437개가 가입해 현재 1431개에 이르는 등 6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착한 가게’는 매달 수익의 3만~2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제도다. 광주 지역 ‘착한 가게’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기부한 금액만도 9억5570만원에 이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원에서도 ‘착한 가게’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은 물론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착한 가게’ 신문을 만들어 모범 업소를 소개하고 있으며 각 동의 자생단체와 가입 장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역의 착한 가게가 늘어나면서 동 복지협의회 등에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몰림 02:44  
해질 19:03    달림 16:54

### 건강관리 유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6/27	보성	구름많음	15/26
목포	구름많음	19/27	순천	구름많음	17/27
여수	구름많음	19/26	영광	구름많음	15/27
나주	구름많음	15/27	진도	구름많음	18/25
완도	구름많음	18/27	진주	구름많음	17/25
구례	구름많음	15/26	군산	구름많음	17/25
강진	구름많음	16/28	남원	구름많음	16/24
해남	구름많음	16/28	홍산도	구름많음	21/24
장성	구름많음	14/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앞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좋음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43	05:11
	00:20	17:14
여수	밀물	썰물
	07:00	01:01
	19:34	12:58

### 주간 날씨

30(화)	31(수)	9/1(목)	2(금)	3(토)	4(일)	5(월)
☁	☁	☁	☁	☁	☁	☁
18/25	19/29	22/29	23/28	23/29	23/31	23/31

## 폭염 꺾이니 가을...감기 조심

폭염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곧장 찾아왔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주 후반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진도(의신면) 27도, 목포 26.5도, 해남·함평 26도, 광주·나주·담양 25.5도, 곡성 24.4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4~27도 분포를 보였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게 오른 벌교도 27.4도에 머물렀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 25일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37도 분포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나흘 만에 기온이 7~10도가량 떨어진 것이다.

광주·전남 곳곳에 내린 가을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7~28일 내린 비는 여수 32.9mm, 광양 32.5mm, 순천 29mm, 완도 25.4mm, 나주 11.5mm, 광주 10.2mm, 담양 7.5mm 등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29~30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 분포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31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28~30도 사이의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서 무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

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 의원 증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 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에게 전화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인 만큼 권 의원 입장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전남 수산물 콜레라 걱정 마세요

최근 수산물을 통한 국내 콜레라 감염 환자 2명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완도산 전복이나 전남 해안지역은 콜레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최근 경남 거제에서 수산물을 먹은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잇따라 콜레라에 감염됨에 따라 신속하게 완도산 전복, 전남 해역의 해수, 수족관에서 긴급 콜레라균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

다. 또 매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병원성비브리오 감시 사업에서도 콜레라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상시 검사는 목포·여수·순천·함평·곡성·전남 해안 3개 지역을 선정해 매월 2회씩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비브리오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서 8월 현재까지 540건을 실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해남서 전남 2번째 지카 확진자 발생

전남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진판정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지난 3월 광양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전국적으로는 11번째 확진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6일 해남에 사는 A(64)씨의 혈액 및 소변검사를 한 결과, 지카바이러스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 다녀온 뒤 발진 증상을 보여 해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병원은 지카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A씨의 상태가 양호해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동행한 동료 3명에 대해 혈액 등을 채취, 국립보건원에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BROADCAST WORLDWIDE Contents, Infinite Possibilities**  
AUG. 31-SEPT. 2, 2016, COEX, SEOUL, KOREA

# 콘텐츠, 한계를 넘다!

## 아시아 대표 국제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BCWW 2016



**행사개요**

일시 **2016년 8월 31일(수) - 9월 2일**

장소 **서울 코엑스 B홀, 컨퍼런스룸 등**

구성 **영상콘텐츠마켓, 컨퍼런스 등**

**기조강연**

미디어 변화의 기회 :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



크레이그 휴네스스 (워너브라더스 텔레비전그룹 사장)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8월 31일(수) 13:00-14:30	방송작가	8월 31일(수) 15:00-18:30	국제포맷	9월 1일(목) 10:00 - 8:30
기조강연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국제포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컨퍼런스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 OST 콘서트는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 K-DRAMA OST CONCERT

9월 2일(금) 18:30-20: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






홍대광 HONG DAE KWANG    박보람 PARK BORAM    김필 KIM FEEL    와벨 WABEL